

# 북한의 중장기 군사력 건설 구상과 무기체계 발전 동향<sup>1)</sup>

이중구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nile999@kida.re.kr

## I. 머리말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 많은 이들이 북한의 계획을 허황된 것이라고 여겼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내에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의 시제품을 제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실제로 4년여가 흐른 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2025년 3월 현지지도 보도를 통해 건조 중인 핵추진잠수함의 모습을 공개했다.<sup>2)</sup> 아직 북한의 핵잠수함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북한은 군사력 건설 계획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핵잠수함 외에도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무기 및 전략핵무기 개발과 정찰정보수집 능력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12월 군수공업 대회에서 정밀공격수단, 저격용 소총, 탱크·장갑차·대전차무기, 함상무장체계 및 무인전투장비의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이,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도 계획해 왔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군사력 건설 구상을 요약해 보고, 그에 따라 북한이 각 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지난 5년 동안 개발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본고는 다음의 글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Choong-Koo Lee, "A General Assessment of 10 Years of the Kim Jong-un Regime: In the Areas of the Military and Secu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30(2), 2021, pp.61~86; 이중구, "북한," in 이상국 외, 『2024 인태 지역 주요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4), pp.361~382.  
2)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조선소들의 함선건조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시고 선박공업의 획기적발전을 위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었다」, 2025. 3. 8.

## II. 북한의 중장기 군사력 건설 구상

### 1.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8차 당대회 이전 군사력 건설 구상

2021년 이전 북한의 군사정책은 이미 핵무기분야에서는 핵 억제력의 신뢰성 제고,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서는 정밀타격전 수행 능력의 확보를 추구하는 특성을 보였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핵 억제력의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2016~17년의 집중적 미사일 발사를 통해 자체적인 핵 억제력 완성 목표(핵탄두 소형화 및 고위력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를 달성했다고 공언했다. 그 이후에 진행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실패한 북한은 2020년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4형과 다탄두 형상의 화성-16형을 그해 10월 열병식을 통해 공개했다. 이러한 무기들은 북한이 적대국의 선제공격이 있는 경우에도 핵 보복 능력을 유지하고 확실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들로서 북한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갖는 무기들이었다.

한편,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서 김정은 정권은 2014년 4대 강군화 노선을 통해 핵무기 개발만이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도 강화시켜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에 따라 2014~15년 간 북한군은 집중적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병력과 군사 장비(전차, 장갑차, 방사포 등)의 양도 늘렸다. 2016년에는 국무위원회가 신설되어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대체하여 국방정책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북한군의 정치적인 역할을 축소하고 정예화, 현대화된 군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국방정책 방향이 명확해진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한군 부대구조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져서 2016년 말 74개이던 독립여단이 2018년 말에는 131개로 대폭 늘어났고,<sup>3)</sup> 신형 대구경 방사포, 지대공 미사일 번개-5호, 지대함 미사일 금성-3형 등 현대적인 재래식 무기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정면 돌파전이 선포된 2020년 이후에는 정밀타격 위주의 제한전을 특성으로 하는 현대전에 걸맞은 방위전략이 제시되었다. 그러한 새로운 방위전략은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감히 기도하려 든다면 영토 밖에서 소멸할 타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놓아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2020년 3월 발언이나,<sup>4)</sup>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우리의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언급한 데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이 발언들은 영토 밖에서 군사적 위협을 격퇴하여

3) 국방부, 『국방백서 2016』(서울: 국방부, 2016), p.236; 국방부, 『국방백서 2018』(서울: 국방부, 2018), p.244.

4) 『노동신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술유도무기 시험사격을 보시었다」, 2020. 3. 22.

산업과 인구의 중심지를 보호하는 현대전적 개념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sup>5)</sup> 그리고 현대전에 대비한 이러한 방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은 2019년 5월 이후 신형 전술무기 4종(북한식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 북한식 에이테킴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8차 당대회 이후까지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했다.<sup>6)</sup>

## 2. 8차 당대회 이후 중장기 군사력 건설 구상

8차 당대회 이전에 이루어진 북한 군사정책의 변화와 군사력 건설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 동안 전술핵무기 개발, 전략핵 능력 고도화, 정찰 정보 능력 확보를 위한 무기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계획이라고 불렸다. 전술핵무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작전 임무의 목적과 표적에 맞게 사용할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전략핵무기 개발부문에 대해서는 “초대형 핵탄두 생산”의 지속적인 추진, 15,000km 내 목표물에 대한 정확도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사업”의 추진,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를 요청했다.<sup>7)</sup> 그리고 정찰 정보 능력 확보를 위한 목표로 군사 정찰 위성의 운용과 무인 정찰기 개발 연구사업도 주문했다.<sup>8)</sup>

과거의 핵개발 목표와 비교하여,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핵 능력 고도화 구상은 다양한 전술핵무기의 개발과 정찰 정보 능력 확보가 새로이 포함되었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능력은 핵 보복 위협으로 억제되기 어려운 제한적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에 가깝다. 즉, 북한은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자신의 안보환경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핵 보복 위협이 적용되기 어려운 제한적 위기에 대해 핵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술핵무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sup>9)</sup> 그리고 충돌 시나리오에 따라 필요한 무기를 개발할 전술핵무기로 상정했을 것이다.<sup>10)</sup> 그리고 정찰 정보 능력도 군사적 표적과

5) 여기에서 현대전이란, 게릴라전, 인민전쟁과 달리 국경에서 적을 방어하겠다는 중국의 ‘현대전’ 개념을 상정하였음. 성인모,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와 전문화 추진: 군사교리 변화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2014년 3월호, pp.35-61 참조.

6) Choong-Koo Lee, “A General Assessment of 10 Years of the Kim Jong-un Regime: In the Areas of the Military and Security,” pp.65-80.

7) 이 가운데, 전략핵 능력 고도화와 관련된 무기 개발 목표들은 이전 시기 군사적 핵정책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전략핵무기 개발 목표 가운데, 15,000km 사거리 내 정확도 향상과 극초음 활공체 개발은 핵 보복 타격의 실행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수중 및 지상 고체 ICBM과 핵잠수함, 초대형 핵탄두 증산은 상대방의 선제 공격 시에도 핵 보복 능력이 일부 유지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8) 『노동신문』,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으로 될 투쟁과 전진의 대회 -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개막」, 2021. 1. 6.

9) Choong-Koo Lee, “A General Assessment of 10 Years of the Kim Jong-un Regime: In the Areas of the Military and Security,” pp.81-82.

10) 이와 더불어, 극초음 미사일 기술은 전략핵 능력 고도화 과업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전술핵무기에도 쓰일 수 있는 기술로 볼 수 있다.

같이 위치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군부대나 수시로 이동될 수 있는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을 고려할 때, 그 표적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한편, 북한은 장기적인 견지의 재래식 군사력 건설 구상으로 정밀타격수단 외의 재래식 군사력도 현대화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2017년 12월 12일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태종수 군수공업부장은 군수공업이 정밀타격수단만이 아니라, 저격 무기, 탱크 및 장갑차, 함상무장체계, 무인 전투장비 등 5개 분야에서 군사 장비들이 마련된 것은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성과”라고 언급했다.<sup>11)</sup> 연설에서는 이들 분야에 성과가 있다고 언급되었지만, 당시까지 실제 이들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했다는 점에서, 이 분야들은 북한이 앞으로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할 분야를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컸다. 실제로 북한은 그 이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고 무기 시험을 재개했을 때 KN-23, KN-24, KN-25 등 정밀타격수단 개발 성과를 선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래식 무기 개발 사업은 2019년 말 북한이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이후 핵 개발 사업보다 후순위로 밀려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 재개가 어렵다면서 정면 돌파전을 선언할 때 “전략무기개발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주문했기 때문에,<sup>12)</sup> 핵무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8차 당대회 이후 한동안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개발 사업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철도기동미사일, 미니 SLBM 등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러·북 군사협력으로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 사업과 동시에 재래식 무기 개발 사업도 추진할 여력을 얻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핵 능력 고도화와 더불어 재래식 신형 무기 개발 및 생산도 추구하고 싶었겠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국제제재로 그럴 경제적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2023년 여름부터 본격화된 러·북 군사협력은 북한에게 경제적 반대급부도 제공함으로써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무기 현대화 구상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을 마련해주었다. 나아가 러·북 군사협력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과 전략적 교류를 통해 북한이 본래 재래식 현대화 구상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 해·공군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을 포함하여 - 재래식 현대화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11) 『노동신문』, 「자위적국방력강화의 력사에 특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제8차 군수공업대회 성대히 개막」, 2017. 12. 12.

12) 『노동신문』,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2020. 1. 1.

### III. 북한의 무기체계 발전 동향

#### 1. 전략군

북한 전략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는 KN-23, KN-24, KN-25, 화성-11라, 화살-1, 화살-2, 해일, 그리고 소위 미니 SLBM 등 8가지가 꼽힐 수 있다. 이들 무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공개했을 때, 현지지도 중인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배경에서 보여진 8가지 무기이다. 이 가운데, KN-23, KN-24, KN-25, 화성-11라는 단거리 및 근거리 탄도미사일이고, 화살-1과 화살-2는 순항미사일이며, 해일과 미니 SLBM은 각각 핵무인수중공격정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다. 이 외에도 북한은 순항미사일 및 핵무인수중 공격정을 계속 개량하면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변종(화살-1라-3, 불화살-3-31, 해일-5-23 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표 1〉 화산-31 탑재 가능 전술무기 8종

명칭	유형	사거리	비고
화성-11가(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800km	요격 회피 폴업 기동
화성-11나(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410km	상공에서 자탄 살포
초대형 방사포(KN-25)	단거리 탄도미사일	380km	연속 발사 가능
화성-11라	근거리 탄도미사일	130km	저고도 동시 발사
화살-1	장거리 순항미사일	2,000km	저고도 비행
화살-2	장거리 순항미사일	2,000km	저고도 비행
해일	핵무인수중공격정	600km	쓰나미 발생
잠수함발사탄도탄(미니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600km	KN-23 파생형

자료: 『중앙일보』, 「총알 같아끼우듯 ‘핵탄두’ 탑재…이런 방식, 북한이 유일」 [북핵 어디까지 왔나], 2023. 4. 7 등 참조.

〈표 2〉 개발 중인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명칭	유형	탄두부	추진체
미상	(단거리)극초음속 미사일	원뿔형	연료앰플화
화성-8	(단거리)극초음속 미사일	활공체형	연료앰플화
화성-16나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활공체형	고체연료 2단

자료: 홍민, 『북한의 신형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분석』,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24. 4. 4, p.2.

이들 전술핵무기와 더불어,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단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로 화성-8형을 2021년 9월 28일 시험 발사에서 처음 선보였다. 개발 과정에서 원뿔형 극초음속 탄두부를 가진 미사일도 실험했다. 2024년에 들어서는 중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6나를 시험 발사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추진체를 모두 앰플화하거나 고체연료화함으로써 북한은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북한군은 기존의 장거리 핵 보복수단인 화성-14형과 15형에 더해, 8차 당대회 이후의 기간에 화성-17형, 화성-18형, 화성-19형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은 화성-17형과 화성-18형의 발사 훈련도 실시한 바 있다. 비록 화성-17형과 18형의 발사 훈련은 이들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한 듯 과시하려는 위협적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이 향후 이 미사일들을 화성-15형처럼 신뢰성 있는 핵 보복수단으로 실전 배치해 가려고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2024년 10월 31일 시험 발사를 통해 새로운 고체연료 ICBM인 화성-19형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사거리와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미사일의 길이를 계속 늘리고 있다. 그 결과 전략미사일 발사 차량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은 다양한 핵 사용 시나리오에 맞춰 정확한 표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해 왔다. 결국 북한 최초의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1호가 2차례의 실패 끝에 2023년 11월 말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이어 북한은 2024년 중 정찰 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으나, 2024년 중 실제 발사는 없었다.

〈표 3〉 북한의 전략미사일 종류

명칭	추진체	사거리	비고
화성-14형	액체연료 2단	10,000km 이상	길이 19.8m (8축 발사 차량 필요)
화성-15형	액체연료 2단	8,500~13,000km	길이 21~22.5m (9축 발사 차량 필요)
화성-17형	액체연료 2단 (개발 중)	15,000km	길이 24~26m <sup>13)</sup> (11축 발사 차량 필요)
화성-18형	고체연료 3단 (개발 중)	15,000km	25m <sup>14)</sup> (9축 발사 차량 필요)
화성-19형	고체연료 3단 (개발 중)	15,000km 이상	28m 이상 <sup>15)</sup> (11축 발사 차량 필요)

자료: Michael Ellman, "Does Size Matter? North Korea's Newest ICBM," 38 North, Oct. 21, 2020; Tianran Xu, "Brief on the DPRK's 8 February 2023 Parade," Open Nuclear Network: "Missiles of North Korea," CSIS, Nov. 22, 2022 참조.

13) Michael Ellman, "Does Size Matter? North Korea's Newest ICBM," 38 North, 2020. 10. 21.

14) Tianran Xu, "Brief on the DPRK's 8 February 2023 Parade," Open Nuclear Network, 2023. 2. 23.

15) 『문화일보』, 「北 선제타격 쉬운 기동성·생존성 떨어지는 중량 80t 괴물 화성-19형 왜 개발?」, 2024. 11. 1.

## 2. 육군

북한 육군에 해당하는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의 목표는 정밀타격수단 개발, 저격 무기 개량, 전차 및 장갑차 개발 및 개량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육군은 우선 정밀타격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M-2018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고, 방사포탄에 유도시커를 장착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sup>16)</sup> 이러한 무기 개발 및 개량은 북한군의 정밀타격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향후 이들 무기체계는 북한 육군의 기존의 122mm 자주포 등을 대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 육군은 - 특수작전군에게도 보급될 수 있는 무기로서 - 새로운 복합소총을 개발하고 저격용 소총을 개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미 2018년 열병식에서 한국군의 K-11 복합소총과 유사한 총기를 내보였으며, 2020년 열병식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총기류를 공개했다.

[그림 1] 북한 육군의 신형 무기체계

〈M-2018 자주포〉



자료: 노동신문, 조선중앙TV.

〈M-2018 대전차 차량〉



북한은 M-2020와 같은 신형탱크를 개발했지만,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T-62 계열의 천마호가 북한의 주력전차로 여겨지고 있다.<sup>17)</sup>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천마호에 능동방어장치(Active Protection System: APS)를 장착하는 등 기존 탱크를 개량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sup>18)</sup> 또한 북한은 대전차 유도탄 능력도 발전시켜왔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제 Spike NLOS(None Line Of Sight)를 본딴 M-2018 대전차 차량을 2018년에 공개했고, 이어서 M-2020 기동포, M-2020 대전차로켓을 선보였으며, 2022년에는 적외선 탐색기와 데이터 링크 기능을 지닌 유도탄을 탑재하고 있는 M-2022 전술로켓도 공개했다.<sup>19)</sup>

16) 이승현, 「북, '유도기능 갖춘 240mm 방사포 개발 성공」, 『통일뉴스』, 2024. 2. 12.  
 17) 김진국, 「[신인군의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남북한 전차의 세대 차이가 낳은 전투력 격차는?」, 『자유아시아방송』, 2022. 6. 6.  
 18) 김형준, 「신형 전차 문 김정은 "전쟁동원준비에 총력 다하는 장병 치하"」, 『노컷뉴스』, 2024. 3. 14.

### 3. 해군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시기였을 2023년 8월 말, 동해함대 제2수상함전대 시절 시 “해군무력강화”라는 말을 내놓았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해군 관련 활동은 증대되었다. 한국에 비해 해군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해군력 강화를 오랫동안 바래왔을 것이나, 그 실현가능성은 러·북 군사협력의 본격화를 통해서야 주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해군무력강화를 위해 기존 잠수함에 대한 핵미사일 탑재 추진, 신형 지대함미사일 개발, 신형 군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톡 방문 직전에 김군옥영용함 진수식을 진행했다. 김군옥영용함은 기존의 잠수함을 개량해 핵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김 위원장은 이를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불렀다.<sup>20)</sup> 뿐만아니라 신형 지대함미사일인 바다수리-6형의 검수사격을 진행하고 “해안선과 해상국경을 믿음직하게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과업을 제시했다.<sup>21)</sup> 이는 신형 지대함미사일이 북한이 선포할 해상국경선을 넘어오는 한국 군함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북한 당국은 신형 군함의 건조를 추진 중이다. 김정은은 2024년 2월 남포조선소에서 8차 당대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신형 군함 건조계획을 보고받았고,<sup>22)</sup> 2024년 12월 조선중앙TV를 통해 3천톤급 신형 군함이 건조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sup>23)</sup> 이어서 2025년 3월에 다시 신형 군함의 건조장면을 보도했지만, 2024년 12월에 공개했던 군함과 외형이 미세하게 달랐다. 그에 따라, 북한이 청진과 남포에서 신형 군함 2척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인 사실을 2025년 3월 조선소 현지지도에서 공개했다.<sup>24)</sup> 이 핵추진잠수함은 약 6~7천톤급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5)</sup> 다만, 여기에 필요한 가압경수로의 개발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므로, 전문가들은 핵추진잠수함의 완성에는 최소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이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sup>26)</sup>

19) 임철균, 「북한의 군사혁신과 전략변화 가능성이 주는 함의-북·중 군사혁신 간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9(1), 2023, p.145.

20) 「노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에서 하신 축하연설」, 2023. 9. 8.

21)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상대해상미사일(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범을 지도하시였다」, 2024. 2. 15.

22)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2024. 2. 2.

23) 「동아일보」, 「北, 기존 2배 3000t급 신형 군함 건조 공개... 러 기술 이전 가능성」, 2024. 12. 31.

24)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조선소들의 함선건조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시고 선박공업의 획기적발전을 제시하시였다」, 2025. 3. 8.

25) 이상규, 신승기,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실태 분석 및 평가」, 『안보전략 FOCUS』, 15, 2025. 3. 19, pp.3~4.

26) 이종구, 「북·러 군사협력에 의한 북한 군수산업 영향과 군사능력 변화」, 『안보전략 FOCUS』 12, 2025. 3. 11, p.4.

## 4. 항공 및 반항공군

북한의 항공 및 반항공군은 한국의 공군력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무인기 및 방공능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왔다. 2023년 7월 27일 정전기념일 열병식에서는 전락무인정찰기인 셋별-4형과 공격형 무인기인 셋별 9형을 공개했다. 러·북 군사협력 이전에도 방현-1, 2 약 300대와 자폭용 무인기 100대, 다목적 무인기 두루미를 포함하여 약 1,000대의 무인기를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생각되었다.<sup>27)</sup> 러·북 군사협력 본격화 이후, 북한은 더욱 무인기 개발 및 생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sup>28)</sup>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덧붙여 북한은 한국 공군에 대처하기 위해 대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대표적인 신형 지대공 미사일인 번개-5호는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우며 러시아의 S-300에 비견된다. 이 미사일은 201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고, 2016년 4월 시험발사되었으며, 곧 이어 실전배치되었으나 성능개량을 위한 시험발사가 추가로 실시되었다.<sup>29)</sup> 2020년 열병식, 2021년 무장장비전시회 등을 통해 북한이 보다 발전된 2단 형상의 대공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점이 시사되어 왔다. 이 미사일의 명칭은 2024년 4월 19일 시험발사에서 별찌-1-2라고 공개되었다.<sup>30)</sup>

참고로, 북한의 전투기 중에는 냉전기에 도입된 미그-19, 미그-21가 약 200대 가량으로 가장 많으며, 1980년대에 도입된 미그-23, 미그-29가 최신 기종이다.<sup>31)</sup> 북한이 대러 파병의 대가로 미그-29, 수호이-27 등을 제공받게 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sup>32)</sup>

## IV. 맺음말

8차 당대회 이전에 이미 김정은 정권은 핵 억제력의 신뢰성 제고와 정밀타격전 수행 능력 확보라는 군사력 건설 구상을 갖고 있었다. 2016~17년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탄두 소형화, 고위력화, 이동식 ICBM 개발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며, 2020년 미북 비핵화 협상 실패 후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면서 SLBM과 다탄두 ICBM을 공개했다. 재래식 군사력

27) 정충신, 「북한, 무인기 1000대 보유… 韓, ‘드론킬러’ 띄우고 ‘레이저 요격’ 나선다[10문10답]」, 『문화일보』, 2023. 1. 3.

28) 정영교, 이유허, 「러시아의 선물 ‘자폭 드론’에 꽃힌 김정은… ‘더 많이 생산하라’ 직접 지시」, 『중앙일보』, 2024. 8. 26.

29) 『세계일보』, 「北 김정은, 신형 지대공 요격미사일 발사 참관」, 2017. 5. 28.

30) 『조선중앙통신』, 「국방과학원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시험발사 진행」, 2021. 10. 1.

31)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23』 (London: Routledge, 2023) 참조.

32) 지경용, 「北, 러에 병사 보내 전투기 얻는다… ‘미그-29 등 협상 중」」, 『TV조선』, 2024. 12. 11; Tim Zadorozhnyy, “Russia could swap North Korean soldiers for Su-27s and MiG-29s, US officer says,” 『The Kyiv Independent』, 2024. 12. 10.

강화를 위해 2014년 4대 강군화 노선을 제시하고 군 구조 개편 및 현대적인 무기 개발을 추진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정밀타격을 강조하는 방위전략을 제시했다.

여기에 8차 당대회에 즈음해서는 제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능력 확보라는 목표가 추가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8차 당대회에서 전략핵 능력 고도화, 전술핵무기 개발, 정찰 정보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2021년부터 2025년 말까지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비롯하여, 초대형 핵탄두,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 ICBM, 핵잠수함 등의 개발과 정찰 위성과 무인 정찰기의 확보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한적 위기에 대응하고 한미동맹 병력의 위치를 탐지하는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23년부터 본격화된 러·북 군사협력은 김정은 정권의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 구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앞서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제재로 인해 핵무기 개발을 우선시하고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는 뒤로 미뤄두어야 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본격화된 러·북 군사협력으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군사기술 협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중장기 군사력 건설 구상과 러·북 군사협력의 유리한 환경 하에서, 북한은 전술핵무기와 신뢰성 있는 핵보복능력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왔다. 우선, 전술핵무기로는 KN-23, KN-24, KN-25, 화성-11라, 화살-1, 화살-2, 해일, 미니 SLBM 등 8가지 종류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화성-8형과 화성-16나 등 단거리 및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아울러 대미 핵보복수단으로는, 기존 화성-14, 15형에 더해 사거리가 15,000km에 달하는 화성-17, 18, 19형을 개발해왔다. 북한이 발사시험을 진행해온 정찰 위성도 이러한 전술 및 전략무기의 사용 시 필요한 지원체계이다.

동시에 북한은 육, 해, 공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도 추진하고 있다. 육군의 정밀타격역량 확보를 위해 M-2018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고, 방사포의 유도무기화를 추진해왔으며, 육군 및 특수작전군을 위한 새로운 복합소총과 저격소총도 개발 중이다. 기갑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형 M-2020 전차의 개발은 물론, 주력전차의 방어력 보강을 진행하고 있다.

러·북 군사협력 이후 두드러지는 변화는 북한 해·공군 분야의 현대화에서 보여진다.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무기 탑재를 위한 기존 잠수함의 개량, 신형 지대함 미사일 개발, 신형 군함 건조가 추진 중이다. 북한 공군력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무인기 개발과 대공방어 강화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병력의 러시아 파병 전후 김정은 위원장은 자폭용 무인기의 대량생산을 추진하라고 명령했고, 과거의 대공미사일 개발 노력을 계속하면서 별찌-1-2형

등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내놓고 있다. 또한, 러·북 군사협력의 대가로, 북한이 미그-29와 수호이-27 등의 러시아 전투기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력 건설 구상은 핵전력 및 재래식 군사력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특히 해·공군 분야 현대화는 러·북 군사협력에서 중요한 추진동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사력 건설 방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국방백서 2016』, 서울: 국방부, 2016.
- \_\_\_\_\_, 『국방백서 2018』, 서울: 국방부, 2018.
- 김진국, 「신인군의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남북한 전차의 세대 차이가 낳은 전투력 격차는?, 『자유아시아방송』, 2022. 6. 6.
- 김형준, 「신형 전차 문 김정은 “전쟁동원준비에 총력 다하는 장병 치하”」, 『노컷뉴스』, 2024. 3. 14.
- 성인모, 「중국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와 전문화 추진: 군사교리 변화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2014년 3월호, pp.35~61.
- 이상국 외, 『2024 인태 지역 주요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4.
- 이상규, 신승기,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실태 분석 및 평가」, 『안보전략 FOCUS』, 15, 2025. 3. 19.
- 이승현, 「북, ‘유도기능 갖춘 240mm 방사포 개발 성공」, 『통일뉴스』, 2024. 2. 12.
- 이중구, 「북·러 군사협력에 의한 북한 군수산업 영향과 군사능력 변화」, 『안보전략 FOCUS』, 12, 2025. 3. 11.
- 임철균, 「북한의 군사혁신과 전략변화 가능성이 주는 함의 - 북·중 군사혁신 간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9(1), 2023, pp.123~154.
- 정영교, 이유정, 「러시아의 선물 ‘자폭 드론’에 꽂힌 김정은…‘더 많이 생산하라’ 직접 지시」, 『중앙일보』, 2024. 8. 26.
- 정충신, 「북한, 무인기 1000대 보유… 韓, ‘드론킬러’ 띄우고 ‘레이저 요격’ 나선다[10문10답]」, 『문화일보』, 2023. 1. 3.
- 지정용, 「北, 러에 병사 보내 전투기 얻는다…“미그-29 등 협상 중”」, 『TV조선』, 2024. 12. 11.
- 홍민, 『북한의 신형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분석』,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24. 4. 4.
- 『노동신문』, 「자위적국방력강화의 력사에 특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제 8차 군수공업대회 성대히 개막」, 2017. 12. 12.
- \_\_\_\_\_,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제 5차전원회의에 관한

- 보도], 2020. 1. 1.
- \_\_\_\_\_,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시였다», 2020. 3. 22.
- \_\_\_\_\_,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으로 될 투쟁과 전진의 대회 -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8차대회 개막», 2021. 1. 6.
- \_\_\_\_\_,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에서 하신 축하연설», 2023. 9. 8.
- 『조선중앙통신』, 『국방과학원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시험발사 진행』, 2021. 10. 1.
- \_\_\_\_\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2024. 1. 29.
- \_\_\_\_\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2024. 2. 2.
- \_\_\_\_\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상대해상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을 지도하시였다», 2024. 2. 15.
- \_\_\_\_\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조선소들의 함선건조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시고 선박공업의 획기적발전을 위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2025. 3. 8.
- 『중앙일보』, 「총알 같아끼우듯 ‘핵탄두’ 탑재…이런 방식, 북한이 유일” [북핵 어디까지 왔나], 2023. 4. 7 등 참조.
- Lee, Choong-Koo, “A General Assessment of 10 Years of the Kim Jong-un Regime: In the Areas of the Military and Secu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30(2), 2021, pp.61~86.
- Michael Ellman, “Does Size Matter? North Korea’s Newest ICBM,” 38 North, Oct. 21, 2020; Tianran Xu, “Brief on the DPRK’s 8 February 2023 Parade,” Open Nuclear Network; “Missiles of North Korea,” CSIS, 2022. 11. 22.
- Tianran Xu, “Brief on the DPRK’s 8 February 2023 Parade,” Open Nuclear Network, 2023. 2. 23.
- Tim Zadorozhnyy, “Russia could swap North Korean soldiers for Su-27s and MiG-29s, US officer says,” *The Kyiv Independent*, 2024. 12. 10.